

온라인 개학에 따른 유초중고·특수학교

학생 안전사고 예방 계획

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

□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생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

- 교육현장에서 등교 개학이 미뤄지므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 증가
-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에서의 활동이 많아짐으로 학교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안전사고 잠재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

□ 학생안전에 대한 총체적 안전 대응체계 마련 필요

- 학교 교육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서 야기 될 수 있는 자살 예방교육, 교통안전 교육 등 학생안전사고 예방의 토대 마련
- 교육지원청, 학교(유치원)이 협력 하여 가정으로 이양된 학생 안전을 관심을 가지는 계기 필요
- ※ 학교 실정에 맞게 온라인유선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학생 생활지도 특히, 안전을 강조해 주시기 바람

※※ 특히 담임 교사의 정기적인 학생 상황 확인 및 학부모 소통 필요

1] 학생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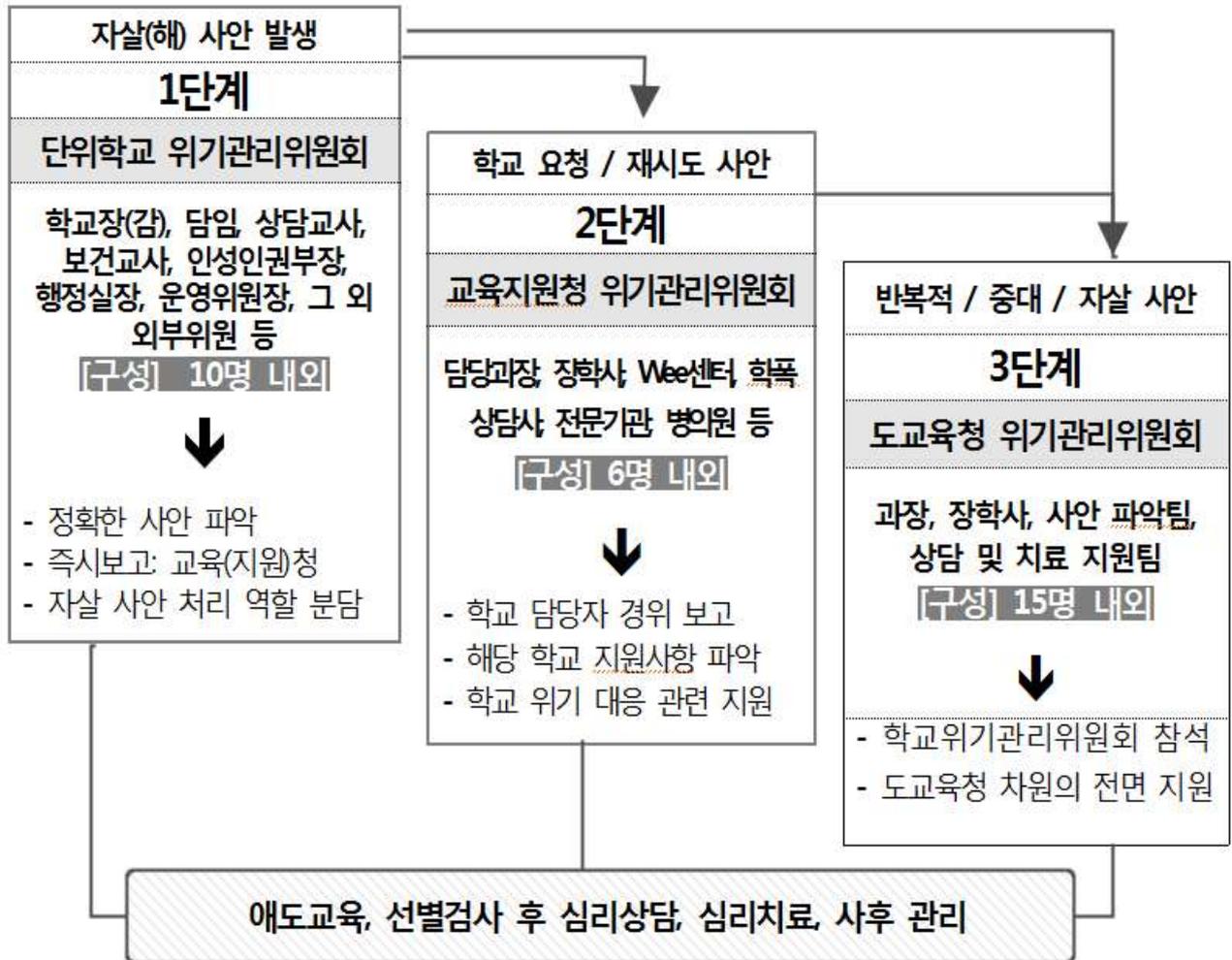
□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단위학교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
 - 개최사안 : 학생자살, 학생자살시도, 학생자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개최
 - 학생자살 사안 및 반복 자살(자해)시도 사안인 경우(교육청 및 외부기관 담당자 참석)
 - 역할 : 신속한 사안 개입 및 교육력 회복을 위한 학교, 교육청, 외부기관 연계
 - 사안파악 및 공지, 교직원별 역할 분담(필수), 학생 및 유가족 지원 등
 - 외부기관 : Wee센터, 정신건강증진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(필수 구성) 등

· **위기관리위원회 위원 간의 상시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체계 강화**

※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학교: 교장, 교감, 교직원, 학부모, 자문위원(경찰, 의사, 변호사 등)
- 교육지원청: 과장, 담당 장학사, 학교폭력전문상담사, Wee센터 및 지역 전문기관 등



□ **자살 위기학생 상담 및 관리 강화**

○ SNS 자살징후 알리미 서비스 활용

- 자살징후 알리미 앱*(스마트안심드림) 적극 활용 권장을 통한 학생의 자살징후 조기 인지

* 자녀의 스마트폰에 수신되는 문자시지, 메신저 등의 자살관련 문자를 감지하여 부모의 휴대전화로 관련 정보 전달(학생, 학부모 모두 앱을 설치해야함)

○ 학생(청소년) 위기문자 상담망 운영[교육부]

- 언제,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문자 상담 시스템(모바일, SNS기반)
‘다들어줄개’*(상담 캐릭터 동물 ‘개’ 표현) 확대 운영 및 관련기관 연계**
- * 카카오톡, 페이스북, 전용 어플, 문자(1661-5004) 등으로 참여
- ** 전문가 상담결과 긴급사례의 경우 119, 병원 등 연계 조치



② 교통안전 교육 강화

□ 교통사고 예방

- 안전한 도로 횡단 5원칙
 - 1원칙 : 우선 멈춘다.
 - 2원칙 : 좌, 우 다시 좌측을 보고 차가 오는지 확인한다.
 - 3원칙 : 횡단보도에서는 오른쪽으로 걷는다.
 - 4원칙 : 차량의 멈춤을 꼭 확인한다.
 - 5원칙 : 건너는 동안 운전자와 눈을 맞추고 차를 계속 보면서 걷는다.
- 자전거 이용(타기 전)
 - 자전거 타기 전 꼭 체크하기 : 몸에 맞는 자전거 선택하기
 - 키, 나이, 자전거 바퀴 사이즈
 - 안전한 보호장구 착용하기
 - 안전모(헬멧), 팔꿈치 및 무릎 보호대, 장갑
 - 자전거 타기 전에 상태 확인하기

○ 자전거 주행 원칙

- 자전거도로와 일반도로
-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통행
-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으면 차도로 통행
- 자전거는 우측통행, 오른쪽으로 타고 내리기
-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처럼 내려서 건너기
- 앞의 자동차, 자전거와 안전거리 유지하기
- 밤에는 전조등이나 후미등 켜기
- 큰길로 나갈 때는 정지하여 좌우 확인하기